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군산 온다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서 20·21일 희극 클래식 발레 공연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포스터.

군산예술의전당이 뜨거운 스페인의 정열과 낭만이 살아 숨 쉬는 유쾌한 희극 클래식 발레 유니버설발레단의 '돈키호테'를 선보인다.

오는 20일(금/19:30)과 21일(토/15:00)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만나 볼 수 있는 '돈키호테'는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 극작가 세르반테스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유니버설발레단의 장기인 화려한 테크닉과 최고의 앙상블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작이다.

이번 작품은 돈키호테의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가난한 이발사 바질과 그의 연인이자 선술집 딸인 키트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둘의 사랑을 방해하는 키트리의 아버지 로렌조와 귀족 가마슈의 코믹적 요소가 극의 유쾌함을 더한다.

특히, 3막에서 남성 무용수가 발레리나를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리는 씬(Scene)과 연속 점프, 32회전 푸에테까지 고난도 테크닉의 화려한 동작들이 펼쳐지는 '그랑 파드되'는 이번 작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희극 발레 '돈키호테'는 심각하거나 비극적인 내용 없이 시종일관 발랄하고 유쾌한 스토리 전개 자체가 흥미진진할 뿐만 아니라 주역들의 높은 기량과 클래식 발레에서 등장하는 화려한 군무를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유니버설 발레단 돈키호테는 발레 초심자부터 마니아층까지 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취향 저격 작품으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정서적인 힐링이 필요한 요즘 놓쳐선 안 될 최고의 기대작"이라며 강력 추천했다.

한편, 유니버설 발레단 '돈키호테'는 거리두기 없이 전석 오픈되어 진행되는 공연으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티켓금액은 R석 6만 원, S석 5만 원, A석 4만 원으로 티켓링크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산=김판곤 기자

임실문화원, 신진·지역 작가 전시 '풍성'

다양한 기획전시 개최

임실문화원(원장 김태진)이 신진작가와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임실문화원 2층에 마련된 기획전시실에서는 올해 2월부터 두 달간 이용상 작가의 탐조사진전을 전시했고, 4월에는 전신자 작가가 주축이 된 서리풀 회원 민화 초대전을 전시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초대된 민화전시는 '민화를 그리다. 마음이 물들다'라는 주제로 전통 채색 물감을 이용하여 그려낸 4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다.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연향도예 회원전,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마을가꾸기협의회 마을사진전,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독도사진전, 7월~8월에는 전라북도 도립미술관에서 문화소외지역을 위해 소장예술작품을 순회 전시하는 '찾아가는 미술전시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김태진 임실문화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신진작가와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하이라이트 기획 전시

김병종미술관서 17~28일 진행

제23회 대상 난각 모란꽃.

남원시는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하이라이트' 기획 전시를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김병종미술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을 기념, 그간(2007~2021년)의 수상작들 중 남원시에 귀속된 동상 이상의 명작들을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는 전시로, 2007년 대상작인 〈낙동기법 접칠 반상기〉(박만수)를 포함하여 다양한 목기, 소반, 머릿장, 서류함 등 총 64점의 수상작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작품들은 전통 목공예 기법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디자인을 반영하여 시대에 어울리는 형태의 예술품들로 재탄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상자들의 독자적인 미감은 물론, 실용성을 반영한 작품들도 있어 기존의 공예품들과 구분되는 특징도 있다.

전통목기는 오랜 기간 남원의 중요한 특산품으로 지역의 경제를 뒷받침한 주요 사업이었으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목기 장인들도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 목기가 지역 공예사 측면에서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는데다 '옻칠 목공예대전'은 오늘날 목공예 기술의 지점을 알 수 있고 작가들은 정보를 얻거나 교류하는 중요한 장이 되는 만큼 이번 전시가 여러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주요 작품들은 화인당(광한루 옆)에서도 공동 전시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고 관람료는 무료이고, 문의는 전화(063-620-5660)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립농악단 '연희꾼 혹부리영감과 여섯 도깨비'

정읍사예술회관서 20~22일 기획공연

정읍시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정읍시립농악단의 기획공연 '연희꾼 혹부리영감과 여섯 도깨비'를 선보인다.

'연희꾼 혹부리영감과 여섯 도깨비'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정읍시립농악단이 직접 제작한 지역 맞춤형 기획공연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히고 지역예술인 양성과 지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우리 농악과 전통연희 마당을 친숙하면서도 교육적인 전래동화 혹부리 영감과 접목해 흥겨운 놀이 한마당으로 재구성했다.

정읍시립농악단원이 주 출연자가 되어 정읍농악의 예능적 화려함을 선보이며, 아이들에게 전통적 볼거리와 권선징악의 의미를 전달한다. 특히, 농악과 전통연희에 도입한 LED 의상 효과와 배경의 빠른 전환을 위한 무대영상을 통해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시민 누구나 선착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관람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쓰레기 줍는' 산행 네트워크 사업 추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13일, 18일. 25일 3일 간 도내 100여 개 강소기업과 함께 부안 직소폭포, 순창 채계산, 무주 구천동 어사길에서 '쓰레기 줍는' 산행 네트워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행은 도내 7개 군 여성친화 유망기업, 농업회사법인 (주)이앤지푸드, (주)참프레, (주)천본, 한국씨엔티(주), 무주덕유산리조트, 나래식품(주) 등을 비롯해 100여개 기업 CEO 및 인사담당자가 참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단위 밀집을 최소화 하고자 지역별로 나눠 3일 간 진행하며, 30여 명씩 참여한다.

특히 7개 군 여성정책담당 공무원, 전문취업상담사가 동행해 여성 취업연계 사업 소개, 여성인력 활용 필요성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쓰레기봉투가 가장 무거운 사람을 뽑아 시상한다. 또한 줍깅(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뜻하는 신조어) 활동을 통해 기업·센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경영을 적극 실현하고자 한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청소년종합센터서 문화축제 '난리났네 난리났어' 열려

김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병철) 아동·청소년 분과는 지난 14일 청소년들이 코로나19를 즐겁게 극복하기 위한 청소년 문화축제 '난리났네 난리났어(열아홉 열넷)'를 김제시 청소년종합센터에서 열었다.

이 사업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지친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이 높아지고 비대면 및 온라인 수업 증가로 축소된 신체활동의 기회를 넓힘으로 또래 관계를 증진시켜 사회성을 향상시키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찾아 게임, 요리 등의 놀이 부스를 통해 재미와 흥미를 더 할 수 있었다. 각종 부스체험을 통해 몸을 움직이고 부딪치며 신체활동의 에너지 소비로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었고 게임을 통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선물 받지 못한 학생들의 아쉬움을 달랠 보물찾기 시간 등 다양한 방식의 즐거움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